

##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차질없는 지급 위해 민-관이 힘 합친다

- 4월 17일(금),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
- 행안부 차관, 금융위 부위원장, 대한민국 시장·군수·구청장 협의회 사무총장 및 카드사, 인터넷은행, 핀테크사 등 금융기관 대표 참석

□ 행정안전부는 4월 17일(금)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금융위원회, 대한민국 시장·군수·구청장 협의회, 시중 9개 카드사\* 및 인터넷은행(카카오뱅크, 케이뱅크, 토스뱅크), 핀테크사(네이버페이, 카카오페이)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.

\* KB국민카드, NH농협카드, 롯데카드, 비씨카드, 삼성카드, 신한카드, 우리카드, 하나카드, 현대카드

○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4월 27일(월)부터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가구·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이 이루어지며, 신용·체크카드, 선불카드,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.

○ 이번 업무협약식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앞서, 행정안전부, 지방정부, 관련 금융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한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□ 업무협약에 따라,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전체 사업계획의 수립, 예산의 교부,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하며, 지방정부는 지급수단 확보, 이의신청 등 민원 접수 및 처리, 집행관리 및 정산 등 업무를 수행한다.

- 카드사, 인터넷은행, 핀테크사 등 금융기관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·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고,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.
- 이와 함께, 지방정부와 금융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대한 위·수탁 계약을 체결하고,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였다.
-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“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국민께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되기 위해서는 신청·지급 등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”라며,
- “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,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하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.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수경 (044-205-3702)
		담당자	사무관	정솔희 (044-205-3723)



**참고****「고유가 피해지원금」 업무협약(MOU) 계획****□ 행사 개요**

- (일 시) '26. 4. 17.(금) 15:00 ~ 15:30
- (장 소)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
- (참석자) 행안부 차관, 금융위원회 부위원장,  
시장·군수·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, 참여 금융기관\*(14)  
\* (카드사) KB국민카드, NH농협카드, 롯데카드, 비씨카드, 삼성카드,  
신한카드, 우리카드, 하나카드, 현대카드  
(인터넷은행) 카카오뱅크, 케이뱅크, 토스뱅크  
(핀테크) 네이버페이, 카카오페이
- (주요내용) 행안부-지방정부-금융기관 간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·접수·정산 시스템 구축·운영, 개인정보처리 위·수탁 등에 관한 업무협약

**□ 시간 계획**

시 간		주요 내용	비 고
15:00~15:05	5'	▶ 국민의례 및 참석자 소개	
15:05~15:08	3'	▶ 행안부 차관 말씀	
15:08~15:11	3'	▶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말씀	
15:11~15:14	3'	▶ 시장·군수·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말씀	
15:14~15:17	3'	▶ 금융기관 대표 말씀(1명)	
15:17~15:30	13'	▶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	